

한국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오 영 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의 여러 측면(문제점, 심각성, 정의, 원인, 효과적인 방지법)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 실제로 어떤 학업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실제 행동이 다른 변인들(성별, 학교, 학년, 학점,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지방의 3개 남녀공학 대학교에 다니는 698명의 남녀대학생들이었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한국형 학업부정행위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업부정행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실제 행동은 여러 변인들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남자, 지방대학의 학생들, 학점이 낮은 학생들,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이 높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학업부정행위는 출석관련 부정행위(예: 대리출석), 논문(과제물)관련 부정행위(예: 표절), 시험관련 부정행위(예: 비밀쪽지 사용)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부정행위 방지법은 학문적 대책이고, 그 다음이 규제적 대책이며, 윤리적인 대책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핵심어: 도덕성발달 • 부정직성 • 학업부정행위 • 표절 • 대학생

많은 사람들이 학업부정행위를 '일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한두번 정도 해보는 낭만적인 행동'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데, 학업부정행위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업부정행위는 부정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지적·도덕적 성숙을 방해한다. 공부를 하지 않고도 부

정행위를 해서 손쉽게 학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다. 또한 학업부정행위라는 명백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리화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발달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둘째, 학업부정행위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의 도덕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다. 학업부정행위는 전염성이 강해서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다른 학생들도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업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학업부정행위를 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는 학생들을 보면서 심한 도덕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학업부정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직업에서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ing, Nuss, & Pavela, 1986; Sims, 1993). 이처럼 학업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지적·도덕적 성숙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직과 성실의 도덕윤리에 기초한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학업부정행위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험도중에 비밀쪽지를 사용하는 명백한 학업부정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59%나 되었다(오영희, 1999).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저지르고 있는 학업부정행위가 미국 못지 않게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약 50-75%의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deman, 1988; Pavela, 1981; McCabe, 1992).

학업부정행위의 심각한 영향력을 일찍 인식한 미국에서는 30여년 전부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구체적인 대

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와 대학당국 모두 학업부정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화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몇몇 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컨닝을 하지 맙시다'라는 스티커를 부치는 방법 등을 통해 학업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의도는 좋지만 학업부정행위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학당국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한데, Kibler등(1988)은 학업부정행위는 부정과 표절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학업활동을 하는 데 부당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학점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inghal과 Johnson(1983: 13)은 학업부정행위를 '부당하게 정보를 주거나, 얻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교수가 학생의 지식이나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논문, 시험, 과제물을 학생이 부당하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학업부정행위를 나타내는 유사한 용어로는 표절(plagiarism), 사기(cozenage), 기만(fraudulence), 부정직성(dishonesty), 학업비행(academic misconduct)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학업부정행위는 '좋은 학점을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넓

게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자신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연구된 학업부정행위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 Evans등(Evans & Craig, 1990a; Evans & Craig, 1990b; Evans, Craig, & Mietzel, 1993)과 Godfrey등(Godfrey & Waugh, 1993; Godfrey 등, 1993)은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문헌과 학생들의 응답을 근거로 24개에 달하는 학업부정행위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에 따르면 학업부정행위는 직접 상대방의 시험지를 베끼는 것과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에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예정된 시험시간에 시험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상당히 미묘한 부정행위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자가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Evans등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는 독특한 학업부정행위가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오영희, 1995, 1996, 1999). 그 대표적인 예가 시험볼 때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을 펴 놓는 것, 답안지를 교환하는 것, 책상·벽·손바닥·지우개 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는 것, 대리출석하는 것, 출석체크후 나가는 것, 교수나 조교들에게 잘 보이는 것 등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에 따라 학업부정행위의 종류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따른 차이는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났다. Evans등(1993)이 미국, 코스타리카, 독일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학생들은 독일학생들보다 학업부정의 여러가지 종류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학생들은 미국이나 코스타리카의

학생들보다 표절(출처를 밝히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베끼는 것)이나 수동적인 부정행위(동료가 자신의 시험지를 베끼도록 하거나 교사의 채점실수를 보고하지 않는 것)를 부정행위로 보는 경향이 훨씬 적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채점실수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학업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스타리카 학생의 59%, 미국학생의 46%가 부정행위라고 생각한 반면 독일학생은 4%만이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업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업부정행위는 개인의 성격특성들과 상황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능이나 학업성취(Antion & Michael, 1983; Bunn, Caudill, & Gropper, 1992), 성별(Schab, 1969; Davis등, 1992; 송현저, 1994; 오영희, 1999), 정서나 행동특성(White, Zielonka, Gaier, 1967; 송현저, 1994)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능이나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남자가, 긴장이나 불안이 높고 반사회성이 높을수록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변인에는 학업부정행위의 성공가능성, 담당교수의 성격이나 교수방법, 학교의 도덕적 분위기,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있다. 학생들은 부정행위가 발각될 가능성이 적을 수록 부정행위를 더 하는 경향이 있으며(Uhlig & Howes, 1967), 교수들이 강의를 잘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문제를 내는 경우 부정행

위를 더 많이 한다(Steininger등, 1964). Montor(1971)는 상대평가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Singhal와 Jonhson(1983)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 기대되고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Cornehlisen(1965)은 학교관리자, 교사, 또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압력도 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업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본 연구자는 1995년부터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오영희, 1995, 1996, 1999). 그런데 본 연구자가 사용했던 연구도구는 Godfrey(1994)가 만든 학업부정행위설문지(Survey of Academic Cheating)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었다. 그러나 Godfrey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그 설문지로는 한국 대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학업부정행위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생들은 시험볼 때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을 펴 놓거나, 책상이나 손바닥 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는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나 Godfrey의 설문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Godfrey가 다루지 않은 부정행위의 다른 측

면들도 다루기 위해 본 연구자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한국형 학업부정행위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부정행위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지각은 어떠한가?

학업부정행위의 여러가지 측면(문제점, 심각성, 정의, 원인, 효과적인 방지법)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살펴보는 것은 부정행위의 원인과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문제 2. 한국 대학생들은 실제로 어떤 학업부정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종류와 빈도를 아는 것은 어떤 부정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연구문제 3. 한국 대학생들이 최초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언제이며, 어떤 부정행위를 하였는가?

어느 학교수준에서, 어떤 부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회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얻게 되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연구문제 4.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실제 부정행위경험과 관련된 변인에
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업부정행위와 관련된 변인들을 찾아보
는 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
해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교, 학년, 학
점,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이 학업부정행
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자

표 1. 연구대상자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	85	91	87	85	348
여	88	91	88	83	350
계	173	182	175	168	698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적 명성이 중간정
도인 서울의 2개, 지방의 1개 남녀공학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표1 참조).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학업부정행위가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Montor, 1971)가 있
으므로 대학을 선정할 때 상대평가적용의
엄격성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의 D
대는 엄격하게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곳으
로 학점당 할당된 비율이 넘으면 아예 컴
퓨터에 성적이 입력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서울의 S대와 지방의 K대는 상대평
가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2. 도구

연구도구는 Godfrey(1994)의 '학업

부정행위설문지(Survey of Academic
Cheating)'와 148명의 한국 남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한국형 학업부정
행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일찌기 Evans와 Craig(1990a)은 인지
발달이론, 귀인이론,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이론, 학생들과의 면담 등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을 알
아보는 설문지(총 109문항)를 만들었다.
Godfrey는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업부
정행위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실제 부
정행위를 한 정도와 부정행위에 대한 태
도를 묻는 총 93문항의 설문지를 만들었
는데 기타문항을 뺀 87문항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 .88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Godfrey의 설문지에는 한국 대
학생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학업부정행
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대학
생들의 부정행위를 연구하는 데는 적합하
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생들은 시
험볼 때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을 퍼
놓거나 책상이나 손바닥 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는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나
Godfrey의 설문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국에
적합한 학업부정행위 설문지를 만들기 위
해 148명의 한국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에서는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업부정행위의 종류, 학업부정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 학업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대학생
들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
고 나서 Godfrey의 설문지와 예비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학업부정행위 설

문지'(총 95문항)를 제작하였다.

한국형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①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14문항):
- ② 학업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7문항):
- ③ 학업부정행위의 정의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17문항):
- ④ 학업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16문항): 교수(5문항), 과목(5문항), 학생(6문항)
- ⑤ 학업부정행위의 효과적인 방지법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16문항):
- ⑥ 대학에서 실제 학업부정행위 경험 하위척도(17문항):
- ⑦ 기타문항(8문항): 부모로부터의 성공

압력 정도, 최초로 부정행위를 한 시기, 최초의 부정행위종류, 생활수준, 성별, 학년, 나이, 지난 학기 평점.

학업부정행위의 지각에 대한 하위척도들의 경우(① - ⑤)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매우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실제 부정행위 경험에 대한 하위척도(⑥)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혀 없다(1)', '단 한번 있다(2)', '여러번 있다(3)', '많이 있다(4)'의 4점 척도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전혀 압력을 주지 않음(1)', '약한 압력을 줌(2)', '강한 압력을 줌(3)', '아주 강한 압력을 줌(4)'의 4점 척도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표 2.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	항	긍정적 반응비율
1.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	95.4 %
2.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이다.	94.6 %
3.	공평한 학점 부여가 되지 않는다.	93.1 %
4.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92.7 %
5.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불리하다.	89.3 %
6.	학문발전이라는 대학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	84.9 %
7.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81.4 %
8.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학생도 유혹된다.	79.9 %
9.	부정행위당사자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78.5 %
10.	학생들의 학업성취의욕이 떨어진다.	78.3 %
11.	부정행위한 학습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75.5 %
11.	인격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82.4 %
13.	학업부정행위는 더 나아가 사회부조리가 된다.	80.0 %
14.	부정행위자는 사회에 나가서도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75.9 %

결 과

1. 신뢰도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는 SAS를 사용하였다.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문항전체(기타문항을 제외한 87문항)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 .87로 나타났다.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별로 구하였는데, 신뢰도의 범위는 $\alpha=.55-.75$ 이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뒤에서 요인들을 설명할 때 제시하였다.

2. 한국 대학생들은 학업부정행위가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의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표2).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 지각 하위척도는 1개의 단일요인('문제점' 요인, $\alpha=.89$)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이 요인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점수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2, p<.000$). 또한 성별과 학교($F=4.08, p<.02$), 학교와 학년($F=2.38, p<.03$)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학교에 따라 성별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문제점을 더 잘 지각하고 있었으나, 특히 서울의 D대(여자평균 0.13, 남자평균 -0.08)와 지방의 K대(여자평균 0.27, 남자평균 -0.34)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²⁾. 학교에 따라 학년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특히 서울의 S대와 지방의 K대가 판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1학년때는 K대가 S대보다 높았으나, 2학년때는 S대가 높아졌다가, 3학년때는 다시 K대가 높아졌고, 4학년때는 다시 S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학년별로 학교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3. 한국 대학생들은 학업부정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의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표3).

이 하위척도는 1개의 단일요인('심각성' 요인, $\alpha=.6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

1) 요인분석은 공통분산과 고유분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중상관제곱치(SMC)를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는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고, 요인간에 어느정도의 상관이 예상되므로 사각회전을 하였고 파라미터는 0.5를 주었다. 요인점수는 회귀방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2) 모든 학년간, 학교간 평균 사후비교는 Scheffe 검정($p<.05$)을 이용하였다.

표 3. 학업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항	긍정적 반응비율
1.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83.0 %
2.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누가 뭐래도 학점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81.1 %
3. 대학교에서 학업부정행위는 심각한 문제이다.	78.8 %
4.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72.1 %
4.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64.0 %
5.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63.2 %
6.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부정행위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42.9 %

인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점수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7$, $p<.009$). 여자들(평균 0.09)이 남자들(평균 -0.10)보다 더 많이 대학에서 학업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학업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부정행위의 정의에 대한 지각 하위척도의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응답한 반응비율('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답)을

표 4. 학업부정행위의 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항	긍정적 반응비율
1. 다른 학생에게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98.7 %
2. 시험볼 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보는 것	97.8 %
3. 시험볼 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쪽지를 사용하는 것	97.1 %
4.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을 펴 놓는 것	95.7 %
5. 시험볼 때 답안지를 교환하는 것	92.4 %
6. 책상, 벽, 손바닥, 지우개 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는 것	91.8 %
7. 다른 학생의 논문이나 과제물을 베끼는 것	85.4 %
8. 대리출석하는 것	73.6 %
9. 출석체크후 나가는 것	62.9 %
10. 다른 학생이 학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 과제물이나 논문을 빌려주는 것	57.0 %
11. 사전에 교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같은 논문을 여러개의 다른 과목에 제출하는 것	55.6 %
12. 논문을 쓸 때 자신이 읽지 않은 책이나 논문을 참고문헌에 쓰는 것	47.8 %
13. 과제물을 할 때 인용한다고 밝히지 않은 채 원문을 글자그대로 베끼는 것	45.9 %
14. 교수가 보지 말라고 금지한 과거의 시험문제를 보는 것	33.0 %
15. 새로운 과목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전에 제출한 논문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	29.4 %
16. 정당한 이유없이 예정된 시험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	26.1 %
17. 교수나 조교들에게 잘 보이는 것	24.4 %

조사해 보았다(표4).

이 하위척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1($\alpha=.72$)은 '시험관련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요인으로서 문항 1-6까지 해당되며, 요인2($\alpha=.75$)는 '논문과 기타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로서 문항7-17까지 해당된다. 표4를 보면 대학생들은 논문이나 기타 학업부정행위들보다는 시험관련 학업부정행위들을 학업부정행위로 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두 요인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점수들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관련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요인의 경우는 두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즉 성별과 학교($F=8.35$, $p<.000$), 성별과 학년($F=3.60$, $p<.013$), 학교와 학년($F=3.56$, $p<.002$)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더니 서울의 D와 S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이 높은 반면 지방의 K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이 높았다. 학교별로 남녀간의 평균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지방의 K대에서만 여자(평균 0.10)가 남자(평균 -0.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과 학년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더니 학년에 따라 남녀의 평균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1학년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반면, 2학년의 경우는 여자가, 3학년의 경우는 다시 남자가, 4학년의 경우는 다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각 학년별로 남녀간의 평균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2학년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자(평균 0.17)가 남자(평

균 -0.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더니 학년에 따라 학교별 평균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2학년의 경우 서울의 두 대학의 평균이 지방대학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논문과 기타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요인에 대한 삼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와 학년간의 상호작용효과만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4$, $p<.02$). 학교에 따라 학년별 평균들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서울의 D대는 1,2,3학년때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4학년때 평균이 약간 하락한 반면, 같은 서울의 S대는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평균이 상승하였다. 지방의 K대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아주 심했으며 2학년때는 평균이 하락하였으나 3학년때는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4학년때는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각 학년별로 학교들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더니 2학년의 경우 D대(0.11), S대(0.00), K대(-0.33)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D대와 K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학년의 경우는 K대(0.42), D대(0.11), S대(0.01)의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K대와 S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1) 교수의 특성 (2) 과목의 특성 (3) 학생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각 표에서 긍정적 반응비율은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답)

표 5. 교수의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	항	긍정적 반응비율
1.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수	84.5 %
2.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교수	79.7 %
3.	단순한 지식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	79.3 %
4.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수	61.0 %
5.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는 교수	56.9 %

한 학생들의 비율이다.

가. 교수의 특성

어떤 교수의 경우에 학업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 표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하위척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1($\alpha=.66$)은 '나쁜 수업기술' 요인으로서 문항3-5까지 해당되며, 요인2($\alpha=.68$)는 '무성의한 학생지도'로서 문항1-2가 해당된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무성하게 학생지도를 하는 교수의 경우가 나쁜 수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경우보다 학업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었다.

두 요인들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점수들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쁜 수업기술'요인의 경우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무성의한 학생지도'요인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는데($F=56.77, p<.02$), 여자들(평균 0.10)은 남자들(평균 -0.10)보다 더 많이 무성의하게 학생지도를 하는 교수의 경우에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과목의 특성

어떤 과목의 경우에 학업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응답이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과목의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	항	긍정적 반응비율
1.	암기만 하면 되는 과목	87.2 %
2.	대강의	84.7 %
3.	교양과목	83.3 %
4.	시험범위가 많은 과목	70.8 %
5.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	61.0 %
6.	전공과목	35.4 %

이 하위척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1은 '학업부담이 많은 과목' 요인($\alpha=.63$)으로서 위의 문항1과 4-6까지가 해당되며, 요인2는 '대규모 교양과목'으로서 문항2-3($\alpha=.67$)이 해당된다.

이 요인들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점수들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부담이 많은 과목'요인의 경우는 학교에 따른 주효과($F=4.05, p<.02$)와 학교와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4.57,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년에 따라 학교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1,2

표 7. 학생의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항	긍정적 반응비율
1.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82.1 %
2. 양심이 없는 이기적인 학생	77.2 %
3. 수업을 잘 듣지 않거나 잘 빠지는 학생	74.8 %
4.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가 있는 학생	52.9 %
5.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규칙을 모르는 학생	25.0 %

학년의 경우는 학교별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3학년에 들어서면서 D대는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S대는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K대는 많이 하강하면서 학교에 따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4학년의 경우 D대와 S대는 하락한 반면에 K대는 상승하면서 여전히 학교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각 학년별로 학교들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3학년의 경우에는 지방의 K대(평균 0.33)가 서울의 S대(평균 -0.2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에는 지방의 K대(평균 0.26)와 서울의 S대(평균 0.02)가 서울의 D대(평균 -0.3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교양과목'요인의 경우는 성별($F=9.14$, $p<.003$), 학교($F=8.31$, $p<.000$), 학년($F=5.38$, $p<.001$)에 따른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자들(평균 0.12)은 남자들(평균 -0.12)보다 더 많이 대규모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 따른 평균차이를 비교해 보았더니 서울의 D대(평균 0.09)와 S대(0.08)의 학생들은 지방의 K대(평균 -0.17) 학생들보다 더 많이 대규모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른

평균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3학년(평균 0.16)이 1학년(평균 -0.12)이나 4학년(평균 -0.10)보다 더 많이 대규모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 학생의 특성

어떤 학생의 경우 학업부정행위를 하기 쉬우느냐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하위척도는 '문제있는 학생'이라는 1개의 단일요인($\alpha=.5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F=8.30$, $p<.004$)과 학교($F=6.82$, $p<.001$)에 따른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평균 0.08)는 남자(평균 -0.08)보다 더 많이 문제있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들의 평균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지방의 K대 학생들(평균 0.16)은 서울의 D대(평균 -0.05)와 S대(평균 -0.11)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문제있는 학생의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6. 한국 대학생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업부정행위 방지책은 무엇인가?

한국 대학생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업부정행위 방지법에 대한 분석이 표8에 제시되어 있다. 긍정적 반응비율은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이다(표8).

학업부정행위의 방지법 하위척도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1($\alpha = .71$)은 '학문적 대책'으로서 문항1, 2, 4-6, 8, 9, 12가 해당되며, 요인2($\alpha = .65$)는 '규제적 대책'로서 문항3, 7, 10, 11이 해당되고, 요인3($\alpha = .69$)은 '윤리적 대책'으로서 문항 13-16이 해당된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은 학업부정행

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학문적 대책이며, 그 다음으로 규제적 대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대책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세가지 요인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 점수들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문적 대책'요인의 경우는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규제적 대책'요인의 경우는 성별($F=6.39$, $p<.01$)과 학년($F=3.25$, $p<.02$)에 따른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평균 0.11)는 남자(평균

표 8. 효과적인 학업부정행위 방지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문항	긍정적 반응비율
1. 강좌규모를 소규모로 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81.9 %
2.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	78.9 %
3.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75.3 %
4. 교수들이 직접 공정하게 채점한다.	71.2 %
5. 퀴즈나 시험을 많이 실시하여 한번의 시험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한다.	66.5 %
6. 매번 전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한다.	65.1 %
7.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57.6 %
8.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한다.	54.8 %
9. 시험대신 리포트와 출석으로 점수를 낸다.	52.1 %
10. 다른 학생들의 시험지를 볼 수 없도록 좌석배치를 한다.	50.2 %
11. 시험시작전 무작위로 자리를 바꾼다.	46.6 %
12. 출석체크를 철저하게 한다.	44.5 %
13.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41.0 %
14.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33.4 %
15.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모든 학생들의 그 문제를 이해하게 한다.	32.7 %
16. 교실에서의 윤리, 공정성, "올바른 일을 하는 것" 등을 강조한다.	30.8 %

-0.11)보다 더 많이 규제적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른 평균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3학년(평균 0.15)과 1학년(평균 -0.15)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대책'요인의 경우는 학교에 따른 주효과($F=18.12, p<.000$)와 성별, 학교, 학년간의 상호작용효과($F=2.26, p<.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의 평균차이를 비교해 보면 지방의 K대 학생들(평균 0.25)이 서울의 D대(평균 -0.06)나 S대(평균 -0.17)보다 더 많이 윤리적인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남녀를 따로 분류한 다음 학년별로 학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남자의 경우는 학년에 따른 평균의 변화가 학교마다 달랐는데, 3학년의 경우만 학교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지방의 K대 남학생들(평균 0.53)이 서울의 D대 남학생들(평균 -0.10)보다 더 많이 윤리적인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학년에 따른 변동의 폭은 달랐지만 모든 학년에서 K대, D대, S대의 순으로 윤리적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Scheffe 검증결과 2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 모두에서 지방의 K대 여학생들이 서울의 S대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윤리적인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7.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얼마나 했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학업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표9에 나와 있다. 여기서 긍정적 반응 비율은 한 번 이상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낸다(표9).

학업부정행위의 실제경험 하위척도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1($\alpha=.72$)은 '시험관련 부정행위경험'요인으로서 위의 문항 10, 12-17까지 해당되며, 요인2($\alpha=.59$)는 '출석과 일부시험관련 부정행위경험'으로서 문항 1, 3, 5, 6이 해당되고, 요인3($\alpha=.63$)은 '논문관련 부정행위경험'으로서 문항 2, 4, 7-9, 11이 해당된다. 표9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은 출석과 논문관련 학업부정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험관련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 세가지 요인이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 점수들에 대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관련 부정행위 경험'요인의 경우는 성별($F=6.39, p<.01$)과 학교($F=6.39, p<.01$)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평균 0.17)가 여자(평균 -0.16)보다 시험관련 부정행위를 더 많이 했으며, 지방의 K대(평균 0.11), 서울의 S대(평균 0.02), D대(평균 -0.13)의 순으로 시험관련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학교와 학년간의 상호작용효과($F=2.37, p<.03$)와 학교, 학년,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2.57, p<.0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보다 평균도 높았고, 학교와 학년에 따른 변동의 폭도 컸다. 그러나 남녀를 따로 분류한 다음 학년별로 학교

표 9. 대학에서 실제 학업부정행위를 한 경험

문	항	긍정적 반응비율
1.	대리출석하는 것	62.7 %
2.	과제물을 할 때 인용한다고 밝히지 않은 채 원문을 글자그대로 베끼는 것	60.7 %
3.	시험볼 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쪽지를 사용하는 것	59.6 %
4.	다른 학생이 학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 과제물이나 논문을 빌려주는 것	58.7 %
5.	책상, 벽, 손바닥, 지우개 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는 것	57.4 %
6.	출석체크후 나가는 것	56.0 %
7.	다른 학생의 논문이나 과제물을 베끼는 것	48.9 %
8.	새로운 과목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전에 제출한 논문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	46.8 %
9.	논문을 쓸 때 자신이 읽지 않은 책이나 논문을 참고문헌에 쓰는 것	43.8 %
10.	시험볼 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보는 것	37.4 %
11.	교수가 보지 말라고 금지한 과거의 시험문제를 보는 것	36.6 %
12.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을 펴 놓는 것	27.2 %
13.	사전에 교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같은 논문을 여러개의 다른 과목에 제출하는 것	16.1 %
14.	교수나 조교들에게 잘 보이는 것	15.1 %
15.	시험볼 때 답안지를 교환하는 것	14.2 %
16.	정당한 이유없이 예정된 시험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	10.5 %
17.	다른 학생에게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7.3 %

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석과 일부 시험관련 부정행위 경험' 요인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F=17.60$, $p<.000$)와 학교, 학년,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F=3.11$,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평균 0.11)가 여자(평균 -0.11)보다 출석과 일부 시험관련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다. 세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따로 분류한 다음 학년별로 학교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본 결과 여자의 경우에만 1학년때 학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방의 K대 여학생들(평균 -0.52)이 서울의 S대 여학생들(평균 0.25)보다 출석

과 일부 시험관련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논문관련 부정행위 경험'요인의 경우는 성별($F=19.14$, $p<.000$)과 학년($F=14.29$, $p<.000$)에 따른 주효과와 성별과 학교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7.38$,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자(평균 0.15)가 여자(평균 -0.14)보다 논문관련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다. 학교에 따라 성별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D대와 지방의 K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평균차이를 보면 4학년(0.22), 3학년(평균 0.14), 2학년(평균

-0.09), 1학년(평균 -0.26)의 순으로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4학년은 1학년이나 2학년보다, 3학년은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다.

8. 한국 대학생들은 언제, 어떤 부정행위를 처음 했는가?

19.4%의 대학생들이 초등학교때 처음 부정행위를 하였고, 21.5%의 대학생들이 중학교때, 16.3%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때, 38.7%의 대학생들이 대학교때 처음 부정행위를 하였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대학생은 4.1%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최초부정행위는 주로 시험관련 부정행위였다. 그중 가장 많이 한 것은 시험볼 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쪽지를 사용하는 것(27.6%)이며, 그 다음으로 시험볼 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보는 것(24.3%), 책상이나 벽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는 것(18.7%), 시험볼 때 답안지를 교환하는 것(6.2%),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들 펴 놓는 것(5.2%),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는 것(4.4%)이 있었다. 그외 논문(과제물)과 관련되거나 대리출석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1%이하로 나타났다.

9. 학업부정행위와 학점,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과 관계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실제 학업부정행위 경험이 학점 또는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변인간에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보았다(표10).

학점과 학업부정행위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점과 몇몇 요인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문제점을 잘 지각하고 있었으며, 나쁜 수업기술을 가진 교수와 문제있는 학생의 경우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규제적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점과 일부 학업부정행위 경험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험 관련 부정행위와 출석 관련 부정행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은 일부 학업부정행위 대한 지각 요인들과 일부 학업부정행위 경험 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압력을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대규모 교양과목과 문제있는 학생의 경우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시험관련 부정행위와 출석 관련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자와 한국형 학업부정행위 설문지를 이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의 여러가지 측면(심각성, 정의, 문제점, 원인, 효과적인 방지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어떤 부정행위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실제 행동이 여러 가지 변인(성별,

학년, 학교, 학점,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학업부정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업부정행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두가지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첫째, 79%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시험도중에 비밀쪽지를 사용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60%나 되었다. 미국의 경우 50-75%의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Ludeman, 1988; Pavela, 1981; McCabe, 1992),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 대학의 학업부정행위도 미국대학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을 다시 입증해 주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연구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해도 발각되지 않으며(83%), 더 나아가서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63%)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학당국의 예방이나 사후

대책이 상당히 허술함을 나타내 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부정행위의 성공가능성은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변인으로 밝혀졌다(Uhlig & Howes, 1967; Steininger 등, 1964). 즉 학업부정행위가 발각될 가능성이 적을 수록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수와 대학당국이 지금처럼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관심을 보인다면, 학업부정행위를 해도 발각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학업부정행위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본 연구자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해 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수와 대학당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이 어떤 행위를 학업부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보는 것 등과 같은 시험관련 부정행위들은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논문이나 과제물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표 10.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계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학점	0.05	0.06	0.06	0.11**	0.09*	0.08	0.02	0.03	0.11**	0.06
압력	0.02	-0.06	0.06	0.03	0.03	0.06	0.07	0.10*	0.12**	0.05
	요인11		요인12	요인13		요인14		요인15		압력
학점	0.10**		0.04	-0.09*		-0.22***		0.01		-0.02
압력	0.03		0.01	0.13***		0.11**		0.07		

요인1: 심각성 요인2: 시험관련 정의 요인3: 논문과정의 기타행위 요인4: 문제점
 요인5: 나쁜수업기술 요인6: 무성의한 학생지도 요인7: 학업부담 많은 과목
 요인8: 대규모교양과목 요인9: 문제있는 학생 요인10: 학문적 대책 요인11: 규제적 대책
 요인12: 윤리적대책 요인13: 시험관련 경험 요인14: 출석과 시험관련 경험 요인15: 논문관련 경험

글을 그대로 베끼는 명백한 표절행위를 부정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54%나 되었는데, 이는 미국 대학생들(23%)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Evans & Craig, 1990a). 이처럼 표절을 부정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명백한 표절을 했던 한국 대학생은 41%나 되었다. 표절은 '지식을 도둑질 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적인 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창의성은 결코 생겨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학업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무성의한 학생 지도를 하는 교수와 나쁜 수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경우 학업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수의 경우에 가장 많이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교양과목의 경우와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기적인 학생의 경우에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효과적인 학업부정행위 방지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학문적 대책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와 학생들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소규모의 좋은 수업을 하는 것,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 대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과 같은 규제적 대책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 교실에서의 윤리 강조 등과 같은 윤리적인 방법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부 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도덕성에 호소하면서 벌이고 있는 부정행위 예방 캠페인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학업부정행위는 출석관련 부정행위, 논문관련 부정행위, 시험관련 부정행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학업부정행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분석결과와 반대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부정행위로 확실하게 인식할수록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실제경험은 성별, 학교, 학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자가 Godfrey의 학업부정행위 설문지를 이용하고, 하위척도를 요인별이 아닌 총점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오영희, 1999)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각 변인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세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업부정행위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우세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더 잘 지각하고 있었고, 시험관련 부정행위도 더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업부정행위의 다양한 원인도 더 잘 지각하고 있었고, 규제적 대책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Evans등(1993)의 연구결과와는 다른데, 한국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전 연구(오영희, 1999)에서는 심각성과 원인(학생)에 대한 지각에서만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반면에 실제 학업부정행위는 시험, 논문, 출석관련 부정행위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chab, 1969; Davis등, 1992; 송현저, 1994; 오영희, 1999).

학교에 따른 차이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지방의 K대가 서울의 S대나 D대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시험관련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을 보면 2학년의 경우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서울의 두 대학의 학생들이 지방의 K대 학생들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학업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지각에서도 서울의 두 대학의 학생들의 지방대학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대규모 교양과목과 문제있는 학생의 경우에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보다 규제적 대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정행위는 시험관련 부정행위경험의 경우에 지방의 K대, 서울의 S대, D대의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D대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고, 서울의 S대와 지방의 K대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상대평가를 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오히려 학교의 소재에 따라 학업부정행위가 차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평가를 하면 부정행위가 증가한다는 Montor(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학업압력이 다른 서울의 두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오영희, 1999)에서는 학업압력이 높은 대학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별이나 학교에 비해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상당히 복잡하였지만, 3학년이 가장 많은 요인에서 다른 학년과 차이를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만을 살펴보면 3학년은 1학년이나 4학년들보다 더 많이 대규모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학년보다 더 많이 윤리적인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부정행위경험을 보면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논문관련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은 일부 학업부정행위의 지각요인들과는 정적인 상관을, 실제 경험과는 부적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문제점을 잘 지각하고 있었고, 나쁜 수업기술을 가진 교수와 문제있는 학생의 경우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규제적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실제 경험에 있어서는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험관련 부정행위와 출석 관련 부정행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행위와 학업성취가 부적의 상관이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Antion & Michael, 1983; Bunn, Caudill, & Gropper, 1992).

부모로부터의 성공압력은 일부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요인들과 일부 학업부정행위 경험 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압력을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대규모 교양과목과 문제있는 학생의 경우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시험관련 부정행위 경험과 출석관련 부정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압력이 학업부정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Cornehlisen (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국 대학생들의 19.4%는 국민학교때 처음 부정행위를 하였고, 21.5%는 중학교때, 16.3%는 고등학교때, 38.7%는 대학교때 처음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학업부정행위가 모든 수준의 학교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초등학교때부터 약 20%의 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했다는 연구결과는 초등학교때부터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입시에 이어 대학입시가 내신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 학업부정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업부정행위의 여러가지 측면을 다양한 연구대상자와 한국형 학업부정행위 설문지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질문지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부정행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대상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대학에서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어느정도 모아졌으므로 앞으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부정행위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수준의 문제라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현지(1994). 시험부정행위와 성(性), 내·외적 성공기대, 반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오영희(1995).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1, 51-78.
- 오영희(1996).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 147-173.
- 오영희(1999). 성별, 학년, 학교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 차이 비교. 교육학연구, 37, 105-125.
- 이순목(1995). 요인분석1. 서울: 학지사.
- Antion, D. L., & Michael, W. B. (1983). Short-term predictive validity of demographic, affective,

-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in relation to two criterion measures of cheating behavio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3, 467-482.
- Bunn, D. N., Caudill, S. B., & Gropper, D. M.(1992). Crime in the classroom: An economic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 cheat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97-207.
- Cornehlson, V. H.(1965). Cheat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 a suburban high school.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Deans and Counselors*, 28, 106-109.
- Davis, S. F., Grover, C. A., Becker, A. H., & McGregor, L. N.(1992). Academic dishonesty: Revalence, determinants, techniques, and punishments. *Teaching of Psychology*, 19(1), 16-20.
- Evans, E. D., & Craig, D.(1990a). Adolescent cognition for academic cheating as a function of grade level and achievement statu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325-345.
- Evans, E. D., & Craig, D.(1990b).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 of academic cheating in middle and senior high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4, 44-52.
- Evans, E. D., Craig, D., & Mietzel, G.(1993). Adolescents' cognitions and attributions for academic cheating: A cross-national stud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6), 585-602.
- Gehring, D., Nuss, E. M., & Pavela, G.(1986). *Issues and perspectives on academic integrity*. Columbus, OH.,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nel Administrators.
- Godfrey, J. R.(1994). Survey of academic cheating. Personal correspondence.
- Godfrey, J. R., & Waugh, R. F(1993). *Measuring student perceptions about cheating*. A paper prese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Western Australian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 Godfrey, J. R., Waugh, R. F., Evans, E. D., & Craig, D(1993). *Measuring student perceptions of cheating in six countries*. A paper prese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 Conference.
- Kibler, W. L., Nuss, E. M., Paterson, B. G., & Pavela, G.(1988). *Academic integrity and student development: Legan issues, policy perspectives*. Asheville, NC: College Administration Publications.
- Ludeman, R. B. (1988). A survey of academic integrity practices in U.S.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172-173.
- McCabe, D. L.(1992). The influence

- of situational ethics on cheating among college students. *Sociological Inquiry*, 62(3), 365-374.
- Montor, K.(1971). Cheating in high school. *School and Society*, 99, 96-98.
- Pavela, G.(1981, February). Cheating on campus: Who's really to blam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64.
- Schab, F.(1969). Cheating in high school.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Deans and Counselors*, 33, 39-42.
- Sims, Randi L(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ishonesty and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68, 207-211.
- Singhal, A. C., & Johnson, P.(1983). How to halt student dishonesty. *College Student Journal*, 17(1), 13-19.
- Steininger, M., Johnson, R. E., & Kirts, D. K.(1964). Cheating on college examinations as a function of situationally aroused anxiety and host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5, 317-324.
- Uhlig, G. E, & Howes, B.(1967). Attitude toward cheating and opportunistic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0, 411-412.
- White, W. F., Zielonka, A. W., & Gaier, E. L.(1967). Personality correlates of cheating among college women under stress of independent opportunistic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1, 68-70.

A Study of Academic Cheating in Korean Colleges

Young Hee Oh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various aspects of academic cheating in Korean colleges.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eating perceptions of Korean college students, (2) to examine their cheating experiences in college, (3)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among cheating and other variables such as sex, school, grade, GPA, pressure from parents. Subjects were 698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Seoul and local area. Data were collected by Korean Academic Cheating Inventory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results showed that cheating was wide spread in Korean colleges even though students recognized negative effects of cheating well. Cheating has various relationships with other variables. For example, men, students from a local college, students with lower GPA, and students with higher pressure from parents did more cheating. Most frequently occurring cheating behaviors were attendance related ones(e.g., making someone attend a class in one's place), then paper related ones(e.g., plagiarism), finally classroom exam related ones(e.g., using secret notes during an exam). Students suggest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of preventing cheating was academic approach, then regulatory approach, ethical approach the least.

Key word : moral development • dishonesty • academic
cheating • plagiarism • college students.